

# 무주군-전주고용노동지청 맞손

### 고용지청, 일자리 창출 지원금 3억 지원 무주군 로컬JOB센터 올 3월부터 운영

무주군은 1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주고용노동지청과 로컬JOB센터 업무와 관련(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한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정영상 전주고용노동지청장을 비롯한 두 기관 관계자 등 20여 명이 함께 해 약정서에 서명하고 2019년 사업계획

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약정서에는 전주고용노동지청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3억 원의 사업비(보조금)를 지원하며, 무주군은 8천만 원의 자치단체 부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무주군은 로컬JOB센터 구축 계획에 따라 관련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고용지청과 협업하기로 약속했다.

무주군로컬JOB센터의 수행기관은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조덕현 무주읍 전복은행 건물)으로 3월부터 구인·구직 연결 및 취업 상담과 소규모 박람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우리 군민들도 이제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강력한 동력인 동시에 민선 7기 주요 공약인 만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영상 지청장은 "로컬JOB센터는 농촌지역 맞춤형 일자리 인프라 지원 사업"이라며 "고용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은 1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주고용노동지청과 로컬JOB센터 업무와 관련한 약정을 체결했다.

# 장수사랑 가족화사업 자살 예방효과 톡톡

### 노인들 안부 스마트폰 동영상으로 타지 자녀들에게 전송

장수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수사랑 가족화 사업'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자살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돼 주목을 받고 있다.

13일 장수군에 따르면 2018년도 지역안전지수 평가 자살부문에서 1등급을 획득해 국무총리 주재 영상회의에서 자살예방 모범 지자체로 선정됐다.

특히 지난 2017년 5등급이었던 자살 부분 지수는 1년 만에 1등급으로 상승한 것으로, 그 원인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군은 자살예방 효과로 지난 2015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수사랑 가족화 사업이 가족사랑 회복

뿐만 아니라 노인 자살률 감소 효과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장수사랑 가족화 사업은 고향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의 안부를 스마트폰 동영상으로 촬영해 타지에 있는 자녀들에게 SNS로 전송함으로써 부모의 안전을 확인하고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높이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현재 16명의 수행 인력이 구성돼 활동 중이며, 이들은 관내 노인 870명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방문해 말벗 역할과 함께 자녀에게 보낼 영상편지, 일상생활 사진 등을 찍으며 안부를 묻고 있다. 수행 인력들은 다양한 영상제공을



노인들 안부를 스마트폰 동영상으로 촬영해 타지에 있는 자녀들에게 SNS로 전송하고 있다.

위해 스마트폰 동영상 편집 기술을 교육받았으며 장수군 지원민방위대, 안전모니터 봉사단으로 활약하며 비상사태를 대비한 응급처치, 소화기 사용요령을 익혀 안전지킴이로도 앞장서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장수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 신청 접수

장수군은 12일 친환경 대중교통을 확대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자에 대해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구매 지원을

통한 보급수량은 10대이며 현재 환경부의 인증 받은 승용전기자동차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중 3대는 사회적 공헌·약자 및

다자녀가구 등을 위해 우선 보급하고 잔여분은 일반에게 보급할 예정이다. 보조금액은 최대 1500만원이며 차량의 성능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신청 접수는 이달 28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장수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발대식이 13일 전통문화의 집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 "건강·보람, 일터에서 찾아요"

### 무주군,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 개최

무주군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발대식이 13일 전통문화의 집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사)대한노인회무주군지회에서 주관한 이날 행사는 2019년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설명과 활동 및 안전에 관한 교육 진행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황인홍 무주군수와 유승열 무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일자리 참여자 등 18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황 군수는 "어르신 여러분의 거뜨한 정신력과 체력, 연륜과 노련함이 사회활동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라며 "여러분을 통해서 사업의 가치는 더 높아지고 보람은 더 커지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사)대한노인회무주군지회에서 는 올해 노인돌봄사업과 게이트볼 강사파견사업, 경로당 관리 사

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거동이 불편해 이웃과 심리적, 정서적 교류가 중단된 어르신들을 돌보기 위한 노인돌봄사업(안전확인 정서지원, 생활상태 점검 등)에는 115명, 6개 읍면 9개 게이트볼장에 파견할 게이트볼 강사는 20명, 쾌적한 경로당 환경을 만들기 위해 경로당 청소와 주변정리 등을 돕는 경로당 관리 사업에는 50명이 투입된다.

이광부 회장은 "지난 사업에 대한 한 차례 평가를 통해 만족도가 컸던 활동들이 중심이 되는 만큼 참여자나 수혜를 받으시는 분 모두 좋아해주실 걸로 기대를 한다"라며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일하시면서 보람을 찾으실 수 있도록 활동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군, 불법 주정차 상습구간 집중 단속

진안군은 13일 올바른 주정차 질서 확립과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진안읍 소재지 내 상습 정체구간 불법 주·정차 차량 집중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최근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주민 불편 해소와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자 집중 단속을 시행하게 됐다.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집중 단속에 앞서 군은 문자발송, 플래카드 게시 등 주차질서 계도 및 단속 안내를 꾸준히 병행해 왔다.

단속구간은 터미널과 제일약국 사거리 등 진안읍 주요 상습 정체구간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카메라(CCTV)와 이동식 카메라가 장착된 차량을 이용

한다. 단속대상은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터미널~쌍다리 구간(주차금지구역)으로 상가 이용객은 정차구역에 최대 30분까지만 정차가 가능하며, 30분 초과 시 즉시 단속된다.

단속시간은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18시까지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인 11시 30분부터 13시 30까지는 단속을 유예한다.

이번 집중단속기간에 적발된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군민의 교통문화수준 향상을 위하여 각종 회의 시 불법 주정차 계도·안내, 홍보물 작성 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지역 매아리

### 진안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진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필환)는 건강하고 깨끗한 먹거리 생산과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농산물 안전성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에 따라 농업생산 현장에서 관행적인 농약사용과 미등록 농약사용 등으로 농산물 잔류농약 부적합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해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사업을 수행하고, 분석항목을 기존 245개 성분에서 320개 성분으로 성분수를 확대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다.

또한 진안시장 내 고향할머니 장터에서 판매 중인 농산물에 한정 되던 잔류농약 모니터링을 1월 말 전후에 개장한 진안 로컬푸드까지 확대했다.

김필환 소장은 "청정 진안고원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소비자는 믿고 먹을 수 있고 생산농가는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차질없는 농산물 안전성 분석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계·계북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발대식

장수군 장계면(면장 김재홍)과 계북면(면장 양영수)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발대식을 개최했다.

장계면은 지난 12일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 및 복지 사각지대 놓인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이장 등 지역사정을 잘 알고 있는 민간 인력으로 구성되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김재홍 면장은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에 기여할 수 있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위촉되고 효과가 기대된다"며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데도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날 계북면은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이장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지역주민 등 34명으로 구성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발대식을 개최했다.

금년 새롭게 시작하는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은 빈곤 및 주거취약가구 등 복지 위기가구 상시 발굴체계 구축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무보수 명예직으로, 긴급한 위기상황발생을 초기에 감지하여 신고하고, 독거어르신 안부확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